

매실나무 (학명 : *Prunus mume*, 장미과)



매실나무 개화. 꿀벌도 보인다.

매실나무는 중국 원산으로 정원에 심거나 열매를 목적으로 재배하기도 하는 낙엽교목으로 높이 6-8m까지 자란다. 수년전 동의보감을 쓴 허준의 일생을 다룬 연속극에서 매실이 건강에 좋다는 내용이 방송된 후, 매실나무 재배바람이 불었다.

꽃은 2월하순서 3월상순경에 지난 해 가지의 엽액에 꽃대가 거의 없이 1-3개가 달리며, 잎이 나오기 전에

흰빛 또는 담홍색으로 피는데 향기가 매우 강하다. 꽃이 예뻐서 꽃을 강조하여 매화나무 혹은 그냥 매화라고 부른다. 눈 속에서도 꽃이 핀다는 설중매(雪中梅)도 매화다. 꿀도, 화분도 적다고 하나, 월동을 한 꿀벌에게 초봄의 귀중한 먹이가 될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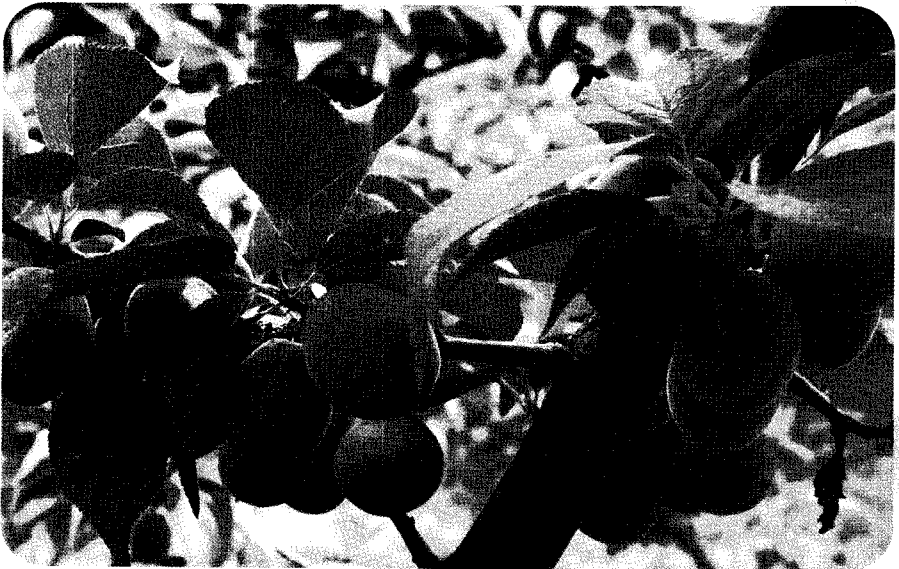
각처에서 과수로 재배하는 낙엽소교목으로 높이 8m까지 자란다. 어린 가지는 녹색이나 오래된 가지는 암자색으로 수피가 갈라진다. 잎은 호생하며, 난형 또는 넓은 난형으로 길이가 4-10cm, 짝 된다.

열매는 핵과로 직경 2-3cm이며, 6월에 황녹색으로 익는다. 과육은 식용, 약용 및 매실주 원료로 쓰인다. 종자는 과육과 잘 떨어지지 않는다. 매실이 인기가 있자 살구를 매실이라고 파는 경우가 있는데, 살구는 과육이 잘 떨어진다. 매실주를 담그기 위하여 매실을 따는 시기를 '청매실'이라고 하여 좀 일찍 따는 경우가 있으나, 하지가 지난 이후에 따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. 매실의 씨에는 독성분이 있으므로, 술을 담근지 한 달쯤 후 매실을 건져내야 된다고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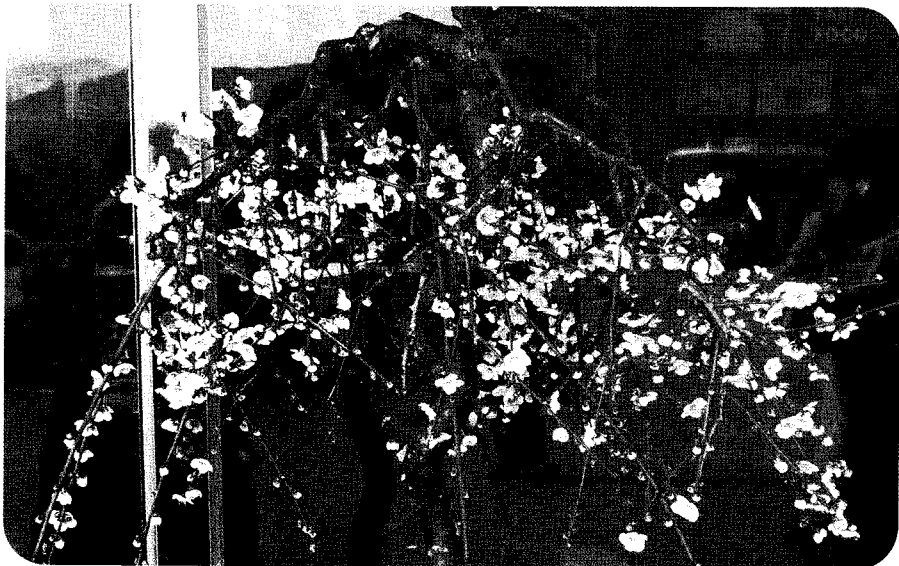
실생묘는 개화가 늦다고 하나 3년생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며, 오히려 어떤 접목묘는 4년생도 꽃이 피지 않으므로 다른 수종과는 차이가 있다. **양봉**



눈 속에서도 꽃이 핀다는 설중매



매실나무 앞과 열매



매실나무 분재